

《국민소학독본》의 국어 교과서적 구성 양상과 그 의미

윤 치 부*

〈 목 차 〉

1. 머리말
2. 소학교 교칙대강
3. 편차 구성
4. 단원 구성
5. 내용 구성
6. 초등 국어 교과서적 의미
7. 맺음말

1. 머 리 말

개화기의 국어교육은 크게 두 갈래 흐름에서 주도되었다. 하나는 내적 작용태에 의한 변화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동인에 의한 변화의 흐름이다. 개화기 이전 한문 중심 교육기에서는 문자교육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한자 내지는 한문이거나 한자의 차자문자였다. 그러나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학부나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국어교육은 곧 한글교육으로 이어진다. 1883년 전환국(典擧局), 기기국(機器國),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여 새로운 서적을 간행하는 한편 순한문의 한성순보에 이어 순한글의 독립신문이 간행되면서 한글 보급 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또한 1884년 10월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나 개화의 물꼬를 텃고, 1894년에는 갑오경장으로 개화의 문호가 활짝 열린다. 갑오

*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경장이 성공하게 되면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라는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음력 대신에 태양력을 사용하도록 하고, 순한글·국한혼용문·순한문 3종의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과 홍범14조문(洪範14條文)을 반포한다. 이로써 한글이 창제된 이래로 국가의 공용문에 처음으로 순한글이 사용되는 역사적 사실을 이룩하였고, 아울러 국어교육이 중심축이 한문에서 한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우리의 한글교육을 자극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1884년에는 미국 북장로회의 알렌(Horace Newton Allen) 선교사가 들어와 광혜원을 세워 서양의 의술을 가르치게 하였고, 다음해인 1885년에는 같은 계통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ce Underwood)와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셀러(Henry Gerhart Appenzeller)가 내한한다. 이 가운데 아펜셀러는 1885년 12월 우리 나라 최초의 신식학교 과정인 배재학당을 설립한다. 이듬해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에 의해 경신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나라 최초의 여자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계속해서 문을 열면서 미션스쿨의 성격을 띤 신식학교들이 하나 둘씩 늘어간다.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한글교육이 비록 하나의 교과목은 아닐지라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영역본 성서와 찬송가의 한글 번역을 시도하여 간접적으로 한글 보급운동에 앞장선다. 아울러 언더우드나 게일(James Scrath Gale), 스콧(James Scott) 등에 의한 영한사전 간행도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한글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점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895년 맨처음 간행된 신식학교의 초등 국어과 교과서이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어떠한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의 초등학교 교재론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당시의 교육과정인 소학교교칙대강과 관련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 교과서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교과서를 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교과서를 전망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소학교 교칙대강

개화기의 교육과정은 크게 1895년 8월 15일 공포된 소학교령기의 교육과정과 1906년 8월 27일 공포된 보통학교령기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가 자주적인 순수한 국어교육, 즉 한글 보급운동이 왕성했던 시기라면 후자의 경우는 일제 통감부

에 의한 국한문 혼용 내지는 병용의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국어교육 퇴조의 시기이다. 소학교령기의 교육과정은 학부령 제3호로 공포된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校則大綱)〉이며, 보통학교령기의 교육과정은 학부령 제23호로 공포된 〈보통학교령 시행규칙〉 중 '교과급편제(教科及編制)'의 '제1절 교칙'이다. 이들 교육과정들은 각각 소학교령과 보통학교령에 따른 교육계획으로 오늘날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국민소학독본〉은 바로 이 소학교교칙대강에 따라 학부에서 편찬한 최초의 신식 초등학교 교과서이다.²⁾ 따라서 소학교교칙대강의 국어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민소학독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학교교칙대강의 제1조는 총론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3조와 제4조가 국어과에 해당된다.

第一條 小學校는 小學校令 第一條의 旨趣를 尊奉하여 兒童을 教育함
 德性을 涵養하고 人道를 實踐함을 勉む는거시 教育上 第1主眼이 되는 故로 아모
 教科目이라도 比에 關連하는 事項은 別로 留意하여 教授함을 要함
 智識과 技能을 確實하여 實用에 適함을 要하는 故로 日常生活에 必要한 事項을
 擇하여 教授하고 反復練習하여 應用이 自在케 함을 務함이 可함
 各 教科目的 教授는 其 經營과 方法을 互相連絡하여 補益함을 要함
 第三條 讀書와 作文은 近으로 由하여 遠에 及하며 簡으로 由하여 繁에 就하는 方法에 依
 하고 문져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의 文字 文句 文法의 讀方과 意義를 知케 하고
 適當한 言語와 字句를 用하여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을 養하고 兼하여 智德을
 啓發함을 要함로 奉
 尋常科에는 近易適切한 事物에 就하며 平易하게 談話하고 其 言語를 練習하여

- 1)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에 대한 변천을 살펴보면 1895년 〈소학교령〉에 따라 소학교라고 사용하다가 1906년 〈보통학교령〉에 따라 보통학교로 호칭하게 되는데, 이 명칭은 1911년의 〈제1차조선교육령〉과 1922년의 〈제2차조선교육령〉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러나 1938년 〈제3차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보통학교를 다시 소학교로 호칭하게 되며, 1941년 〈국민학교령〉에 따라서는 국민학교로 개편되어 계속 사용하다가 1995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초등학교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원래 〈소학〉은 '대인지학(大人之學)'인 '대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인지학(小人之學)'이라는 말이다. 8세 내외의 아동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송나라의 유자징(劉子澄)이 그의 스승 주자의 명에 따라 만든 수신서로서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중요시되어 유교적 윤리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신서로 장려되어 사학(四學)·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적인 교과목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소학〉은 국어 교과서라기보다는 윤리 교과서에 더 가까웠으나 개화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국민소학독본〉이나 〈소학독본〉처럼 초등 국어 교과서로 간행되었다.

國文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게 하고 次第로 國文의 短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을 授하고 漸進하기를 從야 讀書 作文의 教授時間을 分別하니 讀書는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으로 授하고 作文은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과 日用 書類 等を 授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讀書는 漢文交文을 授하고 作文은 漢字交文과 日用書類를 授함이 可함 讀書와 作文을 授하는 時에는 單語 短句 短文 等を 書取게 하고 或 改作야 國文 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하게 함이 可함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야야 普通 國文의 模範됨을 要하는 故로 兒童이 理會하기 易야야 其 心情을 快活純正케 함을 探함이 可하고 또 그 事項은 修身 地理 歷史 理科 其他 日用 生活에 必要하고 教授에 趣味를 添함이 可함

作文 讀書와 其他 教科目에 授한 事項과 兒童의 日常 見聞한 事項及 處世에 必要한 事項을 記述하되 行文이 平易하고 旨趣가 明瞭케 함을 要함

言語는 他教科目的 教授에도 항상 注意야야 練習케 함을 要함

第五條 習字는 通常文字의 書하는 法을 知게 하고 運筆에 習熟케 함을 要旨로 함

尋常科에는 國文과 近易한 漢字를 交하는 短句와 通常의 人名 物名 地名 等の 日用文字及 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前項의 事項을 擴大하며 日常適切한 文字를 增加하고 또 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漢字의 書體는 尋常科에는 楷書 或 行書로 하고 高等科에는 楷書 行書 草書로 함 習字를 授하는 時에는 別로히 姿勢를 整하고 執筆과 運筆을 正케 야야 字行은 整正히 하며 運筆은 힘써 함을 要함”

우선 제1조에서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관련된 사항이다. 즉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두 가지로 잡고 있는데, 하나는 덕성을 함양하고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기를 힘쓰는 것이고, 둘째는 지식과 기능을 확실하게 하여 실용에 알맞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체계는 전자의 경우 유학적 전인을 육성하는 사사삼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교육매체의 정신과 통하고, 후자의 경우는 새 시대 새 사회를 꿈꾸는 서양식 가치 신념 체계와 맞닿아 있다. 즉 자신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 기술을 배워야

3) <學部令> 제3호, 1985. 8. 12. : <官報> 제138호, 1895. 8. 15.(이응백, <속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1989, pp.215~216. :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p.39~40.에서 재인용)

한다는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사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어과 영역의 내용체계는 제3조와 제4조에 나타난다. 제3조에서는 오늘날의 읽기와 쓰기(짓기)에 해당되는 독서와 작문에 관한 내용이고, 제4조에서는 글씨 쓰기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독서와 작문의 기본적인 방법은 가까이 있는 것을 통해 먼 곳에 있는 것에 이르게 하고, 간단한 것을 통해 복잡한 것에 이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오늘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정신과도 다를 바 없다. 이를테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에서 본질의 범주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흥미 유발에서 지식의 인식→지식의 조절 순으로 배열한 것이나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을 개인적인 것(놀이)에서 사회적인 것(토의와 토론)으로, 정서적인 것에서 논리적인 것으로,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게(예 : 학교에서 있었던 일→사회적 쟁점), 일상적인 것에서 전문적인 것의 순으로 배열하도록 한 것과 맥이 통한다.⁴⁾

독서와 작문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로 표방되어 있다. 첫째는 보통의 언어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문자·문구·문법을 읽는 법과 그 의의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당한 언어와 문구를 사용하여 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셋째는 이로써 지덕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가 독서교육의 목표라면, 둘째는 작문교육의 목표이며, 셋째는 이 두 가지의 통합적 목표로서 앞서 말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

교육내용은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심상과에서는 일상주변의 사물을 통해 쉽게 담화하고 그 언어를 연습하게 하여 한글의 독법(읽기)·서법(쓰기)·철법(정서법)을 알게 하고, 다음으로 한글 단문과 국한문 교용문을 가르치고, 특히 작문에서는 일상생활의 실용문 등을 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고등과에서는 심상과와는 달리 한글 단문을 가르침이 없이 국한문 교용문부터 가르치도록 하였다. 독본의 문법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것으로 하되 아동들의 심정을 쾌활하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수신·지리·역사·이과 등과 아동의 일상 견문한 사항이나 처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글씨 쓰기는 일상의 문자를 쓰는 법을 알게 하되 심상과에서는 한글과 간단한 국한 교용문의 인명·물명·지명 등의 일용문자와 실용문을 쓰게 하고, 고등과에서는 이보

4)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1999, p.23.

다 좀더 심화하여 쓰게 한다. 서체는 심상과에서는 해서와 행서를 가르치고, 고등과에서는 이 외에 초서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글씨 쓰기할 때의 자세인 태도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소학교 교육과정은 구조적인 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말하기와 듣기는 물론 문학에 관한 교육내용이나 목표가 없으며, 쓰기도 짓기와 글씨 쓰기로 나누어져 한문중심교육기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 내지는 국한교용문의 국어과 교육을 강조한다거나 실용에 알맞는 지식과 기능을 강조하여 개화와 계몽의 새로운 조류를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국어과 교육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3. 편차 구성

1895년 8월 간행된 근대적 국어 교과용 도서인 《국민소학독본》은 4·6배판 정도의 5침선장본(五針線裝本) 체재로 총 72장 144쪽이다. 문장은 국한문혼용체의 비교적 장문형이며,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없고,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화기 교과서 중 대한 제국 학부 초기의 교과서가 그러하듯이 한지(韓紙)에 한글에는 학부 신제 목활자(學部新製木活字)와 한자에는 후기 교서관 철활자(後期校書館鐵活字)를 혼용하였다. 특히 이 책에 나타난 한글 활자체는 종래의 정음체나 궁체 등 어느 글씨본도 모방한 것이 아닌 독특한 패턴을 보여 준다. 활자 크기에 있어서도 목차부터 본문의 모든 글자가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단원명이라고 하여 더 큰 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책의 표지에는 '국민소학독본'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운데 한자로 세로쓰기하였고, 제목의 오른쪽에는 '학부편집국신간'이라 하여 한자로 발행 주체를 명시하였으며, 왼쪽에는 '大朝鮮國開國五百四年梧秋'라고 하여 1895년 8월에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에 걸쳐 '국민소학독본목차'라 하여 목차를 적었는데, 제1과로부터 제41과까지 한자 표기하였다. 보통 한 페이지에는 10개의 단원명을 가로쓰기하였는데, 이 가운데 제29과까지는 본문에도 똑같이 과를 표시하였으나 제30과부터는 본문에서 과를 표시하지 않고 단원명만 적었다. 그러나 목차에는 일괄적으로 과 표시와 단원명을 함께 표시하였다.

또한 제31과부터 제35과까지는 목차에서는 ‘西米利加發見’ 내지는 ‘西米利加獨立’ 이라고 한자 육서의 가차 표기를 하였으나 실제 본문 속에서는 ‘亞米利加發見’ 내지는 ‘亞米利加獨立’으로 다르게 표기하여 당시 가차 표기의 혼란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조판 체제를 보면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원명을 한 줄에 표시하고 다음줄부터 본문 내용을 기술하였다. 한 줄에는 20개의 글자를 띄어쓰기 없이 세로쓰기하여 우리의 전통적 문집이나 작품집 등의 표기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단락이 바뀔 때는 줄을 바꿔 쓰기하였으며,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면 단지 줄을 바꿔 단원명을 쓰고 계속해서 다음 단원을 시작하였다. 단 오른쪽 페이지인 경우는 책의 우측에, 왼쪽 페이지인 경우는 책의 좌측에 상하로 ‘국민소학독본’이라는 책명과 그 밑에 페이지 표시를 한자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맨 끝 페이지에는 ‘국민소학독본종’이라고 한자 표기하였다. 따라서 《국민소학독본》의 편차 조직은 표지→속표지(앞표지 뒷면에 부착)→목차→본문→뒷표지 순으로 되어 있다.

4. 단원 구성

《국민소학독본》은 총 41과로 되어 있어 비교적 많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단원의 길이에서 보면 가장 짧은 단원은 ‘제1과 대조선국’의 16줄(298자)로부터 가장 긴 단원은 ‘제41과 성길사한2’의 55줄(1069자)까지이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단원의 분량이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동일한 단원의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 단원을 나누어서 단원 구성을 하였는데, ‘제14과 윤돈1’과 ‘제15과 윤돈2’를 비롯해서 ‘제19과 지나국1’과 ‘제26과 지나국2’, ‘제27과 싸힐드1’과 ‘제28과 싸힐드2’, ‘제29과 기식1’과 ‘제30과 기식2’, ‘제31과 아미리가발견1’과 ‘제32과 아미리가발견2’, ‘제33과 아미리가독립1’과 ‘제34과 아미리가독립2’와 ‘제35과 아미리가독립3’, ‘제40과 성길사한1’과 ‘제41과 성길사한2’ 등 모두 7쌍에 15단원이다. 대부분 2단원으로 나누어졌으나 ‘제33·34·35과 아미리가독립’ 단원은 3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원이 연속해서 단원을 나누었으나 ‘제19과 지나국1’과 ‘제26과 지나국2’는 연속시키지 않고 7과나 떨어지게 해서 단원을 배열하였다.

이 단원들 중 전기문에 해당되는 단원은 모두 6단원이다. ‘제5과 세종대왕기사’를 비롯해서 ‘제22과 을지문덕’, ‘제27과 싸힐드1’, ‘제28과 싸힐드2’, ‘제40과 성길사한

1', '제41과 성길사한2' 등이다. 이 가운데 제5과와 제22과는 각각 우리 나라의 세종대왕과 을지문덕의 삶을 다루었고, 제27과와 제28과는 미국의 제20대 가필드(James Abram Garfield) 대통령을 통해 서구 사회의 역사적 인물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제40과와 제41과에서는 중국의 영웅 징키스칸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위대한 생애를 거울삼도록 하였다. 이들은 하나 같이 왕이나 대통령 및 장수로서 애국적 인물인바 이러한 단원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애국심 고취를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들은 모두가 남성 영웅들로서 남성지배이데올로기 시각에서 교과서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여성 전기문이 하나도 없거나 좀더 다양한 인물상을 통한 위인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소학독본》의 한계를 드러낸다.

나머지 대부분은 설명문 형식이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논설문 등의 문장을 혼용하였다. 다음은 전반부에서 설명문 형식을 취하다가 후반부에서 논설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실례이다.

우리 大朝鮮國은 亞細亞洲中의 一王國이라 其形은 西北으로서 東南에 出는 半島國이니 氣候가 西北은 寒氣 甚하니 東南은 溫和하며 土地는 肥沃하고 物産이 饒足하니라

世界 萬物中에 獨立國이 許多하니 우리 大朝鮮國이 許多하니 우리 大朝鮮國도 其中의 一國이라 檀箕衛와 三韓과 羅麗濟와 高麗를 지난 古國이오 太祖大王이 開國하신 後 五百有餘年에 王統이 連續한 나라이라

吾等은 如此한 나라에 生하야 今日에 와서 世界萬國과 修好通商하야 富強을 닦토는 事에 當하얏시니 우리 王國에 사는 臣民의 最急務는 다만 學業을 힘쓰기에 잇는니라 또한 나라의 富強이며 貧弱은 一國臣民의 學業에 關係하니 汝等學徒는 泛然이 알지 말며 學業은 다만 讀書와 習字와 算數 等 課業을 修할 뿐 아니오 平常 父母와 教師와 長上의 教訓을 조차 言行을 바르게 하며 最要하니라(第一課 大朝鮮國)⁵⁾

'우리 대조선국은' 부터 '연속한 나라이라' 까지의 전반부는 설명문 형식인 데 반해 '오등은' 부터 '최요하니라' 까지의 후반부는 논설문에 가까운 문장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문장 사용은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의 읽기 위주의 교과서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

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1, 아세아문화사, 1977, pp.9~10. 띄어쓰기는 필자가 한 것이다. 원래는 띄어쓰거나 구두점 사용이 없다. 이하 《국민소학독본》 교과서의 인용문에서 띄어쓰거나 구두점 사용은 필자가 한 것이다.

로 《국민소학독본》이 바로 읽기 위주의 독본 교과서임을 말해준다.

그런가 하면 ‘제2과 광지식’, ‘제9과 이덕보은’, ‘제13과 지식일화’, ‘제24과 노농석화’, ‘제34과 아미리가독립’ 등은 부분적으로 대화체 문장을 사용하였다.

一日은 한 野蠻人이 제집의 獸肉을 被盜한 바 1 되야 그 近處를 仔細히 觀察한 後에 其人을 잡으랴 林中으로 차즈 갔더니 못츄 二三遊獵者를 만나 問曰

“矮身老人을 만났느냐 나는 其人을 보지 못했앗시나 短尾한 小狗를 드리고 잇나니라”

遊獵者 1 答曰

“果然 그러헌 스름을 보았노라 네 엇지 보지 못한 스름을 如此히 아노뇨”

野蠻人이 曰

“그 스름 몸이 矮小호를 알기는 獸肉을 偷코져 호야 石으로 도음호를 보미오 老人인 줄 알기는 沙上에 足跡의 스이 갓가오미오 短尾한 小狗는 其人이 沙上에 안진 것호 개가 안진 痕迹이 잇기로 判知호노라”

遊獵者 1 그 말을 듯고 크게 그 精密한 觀察을 稱讚호았시니 그 野蠻人은 눈에 丁字를 아지 못호디 能히 知識을 넓히는 法을 야는 者 1 로다(第二課 廣知識)⁶⁾

이와 같은 대화체 문장은 《논어》나 《맹자》 같은 경서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국민소학독본》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점 초등학교 교과서가 발전하면서 대화체 문장의 희곡 작품 등이 수록되는데, 이런 점에서 대화체 문장의 시발점이 된다고 하여도 좋을 듯하다. 물론 띄어쓰기나 구두점 등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군데 군데 단락을 나누는 것도 《국민소학독본》의 단원 전개 방식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목차의 경우도 전통적인 문집에서 취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순한자로 서 과와 명사형 단원명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순한자의 단원명 표현은 이후의 《신정심상소학》에 이르면 목차에서도 국한문이 혼용되며, 명사적 제목 표현만이 아닌 서술형의 제목 표현으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른다.

단원 구성 체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1>과 같다.

6) 위의 책, pp.12~13.

〈표 1〉 단원 구성 체제

단 원 명	내 용	줄 수	비 고
第一課 大朝鮮國	· 대조선국의 지리적 위치, 기후, 역사	16	
第二課 廣智識	· 지식을 넓히는 것은 독서만으로는 안 되며 만물을 정밀히 관찰해야 함	28	대화체 문장 사용
第三課 漢陽	· 한양의 소개	25	
第四課 我家	· 우리 나라 집의 건축법	29	
第五課 世宗大王記事	· 세종대왕의 업적	22	
第六課 商事及交易	· 상업 및 외국과의 교역	24	
第七課 植物變化	· 무· 장미· 난초의 재배	26	
第八課 書籍	· 독서와 저술	19	
第九課 以德報怨	· 선행의 의미	25	대화체 문장 사용
第十課 時計	· 시계의 추와 갈릴레오	17	
第十一課 駱駝	· 낙타의 특징	29	
第十二課 條約國	· 8개 조약국(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미국)	36	
第十三課 智識一話	· 지식의 응용	23	대화체 문장 사용
第十四課 倫敦一	· 런던 소개	25	
第十五課 倫敦二	· 런던에 거주하는 인종 소개	30	
第十六課 風	· 바람의 생성	31	
第十七課 勤學	· 독서의 중요성	24	
第十八課 蜂房	· 벌의 생태	25	
第十九課 支那國一	· 중국의 쇠퇴	22	
第二十課 錢	· 돈의 효용성	21	
第二十一課 紐約	· 뉴욕의 소개	38	
第二十二課 乙支文德	·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30	
第二十三課 鯨獵	· 고래잡이	34	
第二十四課 老農夕話	· 근로의 중요성	32	대화체 문장 사용
第二十五課 時間恪守	· 시간을 지킴	36	
第二十六課 支那國二	· 공자 같은 선현의 가르침을 깨닫지 않음	34	
第二十七課 사필드一	· 가필드의 면학	35	
第二十八課 사필드二	· 가필드의 대통령 취임과 피격	53	
第二十九課 氣息一	· 사람의 호흡	37	
第三十課 氣息二	· 탄산가스와 산소	47	
第三十一課 亞米利加發見一	· 콜럼버스의 항해	41	
第三十二課 亞米利加發見二	· 아메리카 발견	40	대화체 문장 사용
第三十三課 亞米利加獨立一	· 영국의 가혹한 세금 부과	48	
第三十四課 亞米利加獨立二	· 독립전쟁	50	
第三十五課 亞米利加獨立三	· 워싱턴의 대통령 취임	44	
第三十六課 鱈魚	· 악어의 특성	34	
第三十七課 動物天性	· 동물의 성질	42	
第三十八課 合衆國鑛業	· 미국의 광업	49	
第三十九課 元素	· 원소의 성질	53	
第四十課 成吉思汗一	· 징기스칸의 동쪽 정벌	52	
第四十一課 成吉思汗二	· 징기스칸의 중국 통일	55	

5. 내용 구성

《국민소학독본》에 수록된 총41과의 단원은 앞서 말한 소학교교칙대강의 제4조에서 밝히고 있는 수신적인 사항, 지리적인 사항, 역사적인 사항, 이과적인 사항, 일상 견문한 사항, 처세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고르게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우선 당시의 교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의 내용들을 《국민소학독본》의 제재로 택한 것으로,⁸⁾ 자주 독립국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도의 본분과 선현의 가르침, 그리고 국내외 정세와 박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었다.⁹⁾ 이는 곧 개화사상이나 계몽사상과도 통하는 것이었기에 얼마 없어 일제에 의해 압수 또는 발매 금지 대상 도서가 된다. 총 41과를 소학교교칙대강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라 이를 내용 분류하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 2> 《국민소학독본》의 내용 분류

내용분류	단 원 명
수신적인 사항	제2과 광지식, 제8과 서적, 제9과 이덕보은, 제17과 근학, 제24과 노농석화
지리적인 사항	제3과 한양, 제14과 윤돈1, 제15과 윤돈2, 제21과 뉴욕, 제31과 아미리가발견1, 제32과 아미리가발견2, 제38과 합중국광업
역사적인 사항	제1과 대조선국, 제5과 세종대왕기사, 제19과 지나국1, 제22과 울지문덕, 제26과 지나국2, 제27과 짜힐드1, 제28과 짜힐드2, 제33과 아미리가독립1, 제34과 아미리가독립2, 제35과 아미리가독립3, 제40과 성길사한1, 제41과 성길사한2
이과적인 사항	제7과 식물변화, 제11과 낙타, 제16과 풍, 제18과 봉방, 제29과 기식1, 제30과 기식2, 제36과 약어, 제37과 동물천성, 제39과 원소
일상 견문한 사항	제4과 아가, 제10과 시계, 제12과 조약국, 제20과 전, 제23과 경렴
처세에 필요한 사항	제6과 상업급교역, 제13과 지식일화, 제25과 시간각수

- 7) 《국민소학독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나눈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분류에는 빠진 단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막연히 인상비평적이다. 이를테면 식물, 과학, 동물 등의 내용 구분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 그 열 가지 나눔은 ① 애국심(대조선국의 위대성, 세종대왕의 위대성), ② 교육의 중요성(서적의 중요성, 실용학문의 중요성, 미국 가필드 대통령의 면학), ③ 지리(한양, 런던, 뉴욕, 아메리카 발견), ④ 역사(울지문덕, 징기스칸, 아메리카 독립), ⑤ 기술(집의 건축법, 고래 사냥법, 미국의 철광생산), ⑥ 상업(화폐의 유용함), ⑦ 식물(식물재배법), ⑧ 과학(바람, 산소와 탄소가스, 원소, 갈릴레오), ⑨ 동물(동물의 천성, 낙타, 약어, 벌의 생태), ⑩ 사회 윤리(시간엄수, 근로의 중요성) 등이다.(조연순,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 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학지사, 1996, p.110.)
- 8) 이 시기의 초등소학교 교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로 하고, 시의에 따라 학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체조를 제하고 본국(한국)지리, 본국(한국)역사, 도화, 외국어 1과 또는 수과를 가할 수 있었다.
- 9)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 근대 교과용 도서의 성립과 발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p.307.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한문중심교육기의 교재에서 주를 이루었던 수신적인 내용이나 처세에 필요한 사항이 각각 5단원과 3단원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사항(12단원), 이과적인 사항(9단원), 지리적인 사항(7단원)의 단원이 28단원이나 되어 절반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과 같은 과학교육 내지는 실용교육의 중요성이 암암리에 강조되었다.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1. 수신적인 사항

오늘날의 도덕과와 통하는 수신적인 사항들에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독서만으로는 안 되고 천사만물을 정밀히 관찰하여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부터 옛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의 언행·사상·지식을 기록한 책 읽기를 강조하거나 선행의 의미를 밝히거나 힘써 일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독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2과 광지식, 제8과 서적, 제17과 근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2과 광지식'에서는 농업·공업·상업에 힘쓰기는 지식에 달렸는데,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에 앞서 사물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한 실례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집의 짐승을 도둑맞고 그것을 훔쳐간 사람이 개를 데리고 있는 키 작은 노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정황을 들면서 깊은 관찰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8과 서적'에서는 서적은 고급 사람들의 언행·사상·지식 등을 나타내는 사진기와 같으며 인생의 나침반인 유익한 책은 자손후세에까지 유익하다는 것이다. '제17과 근학'에서는 학도들이 졸업하더라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도록 당부한다. 오늘 배우지 아니하더라도 내일 배울 수 있으며, 올해 배우지 않더라도 내년에 배울 수 있다고 하지 말라는 권학문의 정신을 강조한다.

'제9과 이덕보은'에서는 선행의 의미를 60세 한 노인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이 노인은 세 아들에게 평생 모은 전답을 나눠주고 나머지 금전을 께 속에 보관하고 있다. 가 선행한 아들에게 주겠다고 한다. 이에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맡기므로 아무런 보수 없이 보관하였다가 돌려주어 선행을 하였다고 하며, 둘째아들은 한 냇가에서 7, 8세 된 아이가 잘못하여 물 속에 빠지거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구출하여 선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노인은 큰아들이나 둘째아들의 행위는 인간의 마땅

한 도리라고 한다. 이는 《맹자》에서 말하는 사단(四端)의 측은지심을 예로 든 것과 유사하다.¹⁰⁾ 이에 반해 셋째아들은 낭떠러지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데, 이 행위가 결국 선행으로 여겨져 셋째아들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제24과 노농석화’에서는 한 노인이 물고기가 알을 낳기 위해 물 속에서 노력하는 것과 한 마리 새가 집을 지으려 부리로 노력하는 것을 통해 근로의 의미를 깨닫고 황무한 전원을 개척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서나 선행이나 근로는 예부로부터 사람이 힘써 닦아야 할 본분으로 강조되던 수신적 내용들이다. 《국민소학독본》에서도 이들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5.2. 지리적인 사항

지리적인 사항의 강조는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개화사상과 통한다. 그러기에 지리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자리잡을 만큼 중요시 여겨졌다. 종합교과적인 내용을 다루었던 《국민소학독본》에서도 결국 지리에 관한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지리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나라의 지리적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우리 나라 지리와 관련된 내용은 ‘제3과 한양’의 1단원인 데 비하여 외국의 지리적 내용은 ‘제14과 윤돈1’, ‘제15과 윤돈2’, ‘제21과 뉴욕’, ‘제31과 아미리가발견1’, ‘제32과 아미리가발견2’, ‘제38과 함중국광업’ 등 7단원이나 된다.

‘제3과 한양’은 우리의 수도인 한양을 소개하고 있는데, 외국의 수도와 비교하면 학예·상공·교통 등이 구비치 못한 것이 많으므로 학생들이 연구하여 문명 개화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면한다.

‘제14과 윤돈1’은 영국의 수도 런던을 소개하고 있는데, 런던은 인구가 400만으로 4분마다 한 명이 태어나고 6분마다 한 명이 죽는 인구 조밀한 도시로 템즈강이 흐르는

10) 《맹자》의 〈公孫丑 上〉에 보면 “사람이 다 차마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까닭은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려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나 다 놀래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마음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니며, 마을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니며, 그 어린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증오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측은한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皆有怵惕惻隱之心，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非惡其聲而然也。由是觀之，無惻隱之心，非人也.)”는 내용이 있다.

세계 상업의 중심지이다. '제15과 윌슨2'에서는 런던에 거주하는 인종을 언급하였는데, 동양인으로는 일본인·청나라인·인도인·페르시아인 등이 살고, 서양인으로는 미국인과 남아프리카인 등이 거주하며, 구라파인으로는 독일인(德人)·프랑스인(法人)·스페인인(西班牙人)·포르투갈인(葡萄牙人)·러시아인(魯西亞人)·폴란드인(波蘭人)·헝거리인(凶牙利人)·스위스인(瑞西人)·노르웨이인(那威人)·핀란드인(芬蘭人)·스코틀랜드인(蘇格蘭人)·아일랜드인(愛蘭人)·유대인(猶太人)·희랍인(希臘人) 등이 살고 있다. 이러한 지명의 대폭적 열거는 소학교교칙대강 제5조의 습자 교육에서 인명·물명·지명을 쓰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보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한자식 표기의 지명을 익히게 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제21과 뉴욕'은 미국의 뉴욕을 설명하고 있는 바 뉴욕은 인구가 200만으로 무역 대도시이다. 서쪽으로 허드슨강이 흐르고, 북동쪽에는 여관과 상점이 즐비한 브로드웨이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증권을 매매하는 집이 연속한 월가가 있다. 따라서 뉴욕은 파리와 런던에 비견되는 대도시이다.

'제31과 아미리가발견1'은 스페인의 한 항구에서 이탈리아 제노아 사람 콜럼버스가 이끄는 3척의 배가 인도에 도착하고자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한다. '제32과 아미리가발견2'는 콜럼버스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다가 결국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한다.

'제38과 합중국광업'은 미국에서 광산물의 산출을 설명한 단원인데, 1년에 석탄 생산은 7,000여 만톤이고, 철 생산은 800여 만톤으로 세계 제일이다. 그 중 펜실바니아주에서는 석탄과 철 생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네바다주에서는 금을 주로 생산한다. 또한 일리노이주에서는 동을 생산하며, 펜실바니아주에서는 기름을 생산한다.

이처럼 지리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단원들에서는 여러 지명이나 인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유도하였다.

5.3. 역사적인 사항

역사적 사실들도 우리 나라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외국의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이 기술하였다. 우리 나라의 역사적 사실에 해당되는 단원으로는 '제1과 대조선국', '제5과 세종대왕기사', '제22과 을지문덕' 등 3단원이며, 외국의 역사적 사실에 해당되는 단원은 '제19과 지나국1', '제26과 지나국2', '제27과 사힐드1', '제28과 사힐드2', '제33과 아미리가독립1', '제34과 아미리가독립2', '제35과 아미리가독립3', '제40과 성길사한1', '제41과 성길사한2' 등 9단원이다.

‘제1과 대조선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지리적 위치, 기후, 역사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 여러 나라와 수호통상조약을 맺어 부강한 나라를 지향한다고 강조한다. ‘제5과 세종대왕기사’에서는 세종대왕이 〈농사집설〉·〈삼강행실〉·〈용비어천가〉 지음, 아악 정리, 훈민정음 창제, 활자 주조 등의 역사적 업적을 찬양하였다. ‘제22과 을지문덕’에서는 을지문덕이 수양제의 130만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을 소개하였는데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신묘한 계책은 천문에 통했고, 오묘한 계산은 지리에 닿았네. 전쟁에 승리한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한 줄을 알아 그만두기를 바라오.(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의 오언고시도 언급하였다.

‘제19과 지나국1’에서는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패하여 홍콩항을 영국에 내준 상황에서 지금도 중화라고 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한다. ‘제26과 지나국2’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쇠퇴를 공자와 같은 선현의 가르침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걸치레만 한 데서 찾고 있다.

‘제27과 짜필드1’에서는 가필드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와 형의 도움으로 어렵게 면학하는 이야기이고, ‘제28과 짜필드2’에서는 가필드가 중학과 대학과정을 마치고 남북전쟁에서 사령관이 되었다가, 고향 오하이오주의 국회의원이 되고, 이어서 링컨 대통령의 후임으로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결국은 피격을 당한다는 이야기다.

‘제33과 아미리가독립1’에서는 영국인이 미국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함에 이에 미국이 보스턴항 등을 봉쇄하며, ‘제34과 아미리가독립2’에서는 미국이 워싱턴을 원수로 삼아 영국과 독립전쟁하고, ‘제35과 아미리가독립3’에서는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여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40과 성길사한1’에서는 여진족의 징기스칸이 몽고를 합병하고 중앙아세아를 정벌하여 러시아 변경까지 나아가고, ‘제41과 성길사한2’에서는 징기스칸의 중국통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역사적 제재는 우리 나라와 중국과 미국의 역사를 주로 소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서 인물들도 우리 나라의 세종대왕과 을지문덕, 미국의 가필드, 중국의 징기스칸 등 위대한 선인들이다.

5.4. 이과적인 사항

이과적인 사항이란 과학적인 내용이다. 이 과학적인 내용에는 생물적 내용의 ‘제7과 식물변화’를 비롯해서 ‘제11과 낙타’, ‘제18과 봉방’, ‘제29과 기식1’, ‘제30과 기식2’,

'제36과 약어', '제37과 동물천성'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제7과 식물변화' 만 식물적 내용이고 나머지는 동물적 내용이다. 또 '제39과 원소'는 화학적 내용이고, '제16과 풍'은 지구과학적 내용이다.

'제7과 식물변화'에서는 순무(蔓菁)·무(蘿菔)·홍당무(紅蔓菁)·장미·난초 등의 식물은 자연 환경에 따라 달리 성장한다. '제11과 낙타'에서는 낙타의 생김새·혹·위 등은 사막에서 지내기에 적합하다. '제18과 봉방'에서는 벌에는 수벌(雄蜂)·암벌(雌蜂)·일벌(工蜂) 등이 있는데, 벌집의 구조는 다른 곤충에 비하면 궁전과 같다. 이 벌집은 일벌이 만드는데, 3대가 교대하면서 집을 완성한다. 먼저 제1대가 재료를 모아 대강의 집을 만들면 제2대가 벌집의 모퉁한 부분을 일정하게 하게 하고, 이어 제3대가 꽃가루를 채집하여 제2대를 보조한다. 이처럼 '제37과 동물천성'에서는 동물은 각각의 천성을 갖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가축류는 곡식을 부수기에 편리한 넓은 치아를 가졌으며 위에서 반추하는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담육수(啖肉獸)는 그 발톱이 다른 동물을 잡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제29과 기식1'은 사람의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사람의 호흡은 순수한 공기를 들이쉬는 들숨(吸息)과 순수하지 못한 공기를 내뿜는 날숨(呼息)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내뿜는 숨에는 탄산가스가 많다. '제30과 기식2'에서는 사람이 산소를 취하여 불을 지어내는 것이 탄산가스이다. 따라서 식물은 사람이 뿜어내는 탄산가스를 필요로 하고 사람은 식물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방에 분재를 두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제39과 원소'에서는 원소란 화학적 용어인데, 이 세상에는 65종의 원소가 있다. 원소와 화합물의 성질을 강론하는 학문을 화학이라 하고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화학자라 한다. '제16과 풍'에서는 바람은 공기의 흐름으로 차갑고 따뜻함이 같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공기의 운동은 해변에서 오후에는 육지가 온도를 받아들임이 많기 때문에 해풍이 되고 밤에는 해면이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육지풍이 불게 된다.

이들 이과적 내용들은 하나같이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실례들이 매우 실제적이다.

5.5. 일상 전문한 사항

일상 전문한 사항의 글들은 집의 건축법을 설명한 '제4과 아가', 시계의 등장을 설

명한 '제10과 시계', 우리 나라와의 조약국을 설명한 '제12과 조약국', 돈의 효용성을 설명한 '제20과 전', 남극해와 북극해에서의 고래잡이를 설명한 '제23과 경련' 등이다. 이들 단원들은 집이나 시계나 돈과 같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비롯하여 조약국이나 고래잡이와 같은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제4과 아가'는 우리 집의 건축법을 소개한 단원이다.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먼저 설계를 하고 나서 목수와 석수와 역군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집을 완성할 즈음에는 기와장이(瓦匠)·미장이(泥工)·돗자리공(席匠)·도배장이(塗褙工)를 고용하여 집을 마무리한다. 아주 옛날에는 동굴 속의 집에서 시작하여 중간에는 큰 나무를 세워 그 위에 지붕을 덮은 작은 집에서 살더니 오늘날과 같은 웅대한 집이 생겨난 것이다.

'제10과 시계'에서는 오늘날의 시계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래시계나 물시계를 사용했었는데, 물시계의 경우는 코코 열매의 껍질을 정중으로 나누어 그 밑에 구멍을 내어 물이 들어오는 양으로써 시간을 정하였다.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추를 발명하면서부터 오늘날과 같은 시계가 등장하였다.

'제12과 조약국'에서는 조약국이란 우리 나라 국왕과 외국의 국왕이나 대통령과 조약서를 교환하여 그 나라 사람과 서로 교통 무역하는 나라를 말하는데, 조약국 사이에는 공사를 파견하여 외교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영사를 파견하여 무역 업무를 보게 한다. 우리 나라의 조약국은 동양에서는 일본이고, 구라파에서는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이며,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다. 청 나라인 중국은 형제국이다.

'제20과 전'에서는 돈이란 원래 교역을 편하게 하는 수단으로 금은과 동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돈을 사용함으로써 첫째로 사람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통용에 편리하고, 둘째로 매년 각처에서 생산되는 양의 가감이 없고, 셋째로 빨리 손상되지 않고, 넷째로 가벼워도 귀하고, 다섯째로 나누기와 만들기가 쉽다.

'제23과 경련'에서는 남극해와 북극해에는 고래가 많아 구라파와 미국에서 해마다 여러 척의 배가 고래잡이를 한다. 포경선이 고래잡이 현장에 다다르면 여러 작은 배를 포경선에서 내려 고래잡이를 한다.

5.6. 처세에 필요한 사항

처세에 필요한 내용의 단원은 '제6과 상업급교역', '제13과 지식일화', '제25과 시간각수' 등이다. '제6과 상업급교역'에서는 어느 한 지방이나 나라에서 산출되는 물품은

한정되어 있기에 서로 교역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고립하여서는 생업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 부디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며, 이런 점에서 외국과의 교역도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3과 지식일화'에서는 지식의 귀하기는 실제 응용함에 있는 것이니 제대로 응용하면 악한 힘도 선한 힘이 되고,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면 선한 힘도 악한 힘이 된다. '제25과 시간각수'에서는 사람이 직업을 얻어 성공하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도들은 근면하여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6. 초등 국어 교과서적 의미

《국민소학독본》은 개화기 최초의 신식 국어 교과서로서 한문중심교육기의 전통적인 교재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편찬의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의 초등 국어 교과서적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들 의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문중심교육기의 교재들이 교과가 분과되지 않은 통합적인 교재들이던데 반해 이 책은 최초로 초등 국어 교과서로서 편찬된 교재라는 사실이다. 물론 조선조에 오면 국어와 관련된 교재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¹¹⁾ 이를테면 《천자문》이나 《유합》이나 최세진의 《훈몽자회》 등은 국어교과적 성격이 강한 교재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가 정한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편찬된 교재가 아니라 한낱 개인의 저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소학독본》은 소학교교칙대강이라는 교육과정에 따라 나라에서 편찬한 국어 교과서의 효시가 된다. 따라서 최초로 국한문혼용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바 이는 한문 중심적 문자 체계에서 한글의 중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직도 교과서의 전면에 걸쳐 어려운 한자들이 사용되는가 하면 목차의 경우도 전면 한자 표기를 하고 있어 한문중심교육기의 교재적 틀에

11) 특히 조선조 후기에 오면 국어과 관련된 교재들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를테면 주시경에 의해서 간행된 《국문론》(1897), 《국어문법》(1898), 《국문문법》(1905), 《대한국어문법》(1906), 《국어와 국문의 필요》(1907), 《국문연구안》(1907), 《국어문전음학》(1908), 《국문연구》(1909), 《국어문법》(1910), 《소리갈》(1913), 《말모이》(1913)를 비롯해서 지식영의 《신정국문》(1905),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1909), 《조선어전》(1911),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 이규영의 《말듬》(1913) 등 여러 교재들이 있다.

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소학독본》이라는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근대적 개념의 '국민'이라는 말을 머리에 붙였다. 물론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도에 있어 '국민'이라는 말이 전혀 생소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임금에 대한 백성의 종속관을 개화시대에 맞게 표현하여 절대 군주제를 신봉하던 국제존엄의 의미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¹²⁾

셋째, 아직도 이 책은 전통적 읽기 위주의 독본 교과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기나 듣기나 쓰기의 역할까지 고려한 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이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내용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지식 제시의 주입식 교과서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더 더욱 읽기적 성격이 교과서이면서도 읽기의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 중심의 교과서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과서의 말미에 학도들이 힘써 배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계몽적 어조에서도 강하게 뒷받침된다.

넷째, 이 교과서는 통합교과서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재 선정 기준에서 당시의 교과목과 관련된 수신·지리·역사·이과·견문·처세 등의 내용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어 이 책의 제재 선정 기준이 당시의 국어과가 아닌 다른 교과목들과의 상관성을 고려한 일정한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재 선정은 바람직한 학생상의 구현과 통하는 것으로 근대적 지식이 바로 이러한 다방면의 지식을 수용함에서 비롯됨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다섯째, 인명·물명·지명 등과 외래어 표기가 초등학교용 교과서로는 어울리지 않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명·물명·지명이나 외래어 표기는 본문에서는 물론 단원명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단원명에서만 하더라도 대조선국·한양·윤돈(런던)·지나국(중국)·뉴약(뉴욕)·아미리가(아메리카) 등의 지명을 비롯해서 세종대왕·을지문덕·싸훤드(가필드)·성길사한(징기스칸) 등의 인명과 시계·낙타·봉방·악어 등의 물명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본문 속에서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특히 외래어 표기에서는 싸훤드와 같은 단원명 속의 표기가 본문 속에서는 싸훤드 등으로도 표기하여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¹³⁾ 과다한 외래어 표기 사용 실태 현상은 개화기 교과서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다.¹⁴⁾ 따라서 당시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인명·물명·지명·외래어 등을 알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나를 알고 동시에 남을

12) 이종국, 앞의 책, pp.262~263.

알아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계적 안목을 갖도록 하였다.

이처럼 《국민소학독본》은 형식면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교과서관인 강독을 위한 자료로서의 국어 교과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용면에서는 근대적 지식들을 담아 계몽적 성격의 종합교과서로서의 모습을 지닌다. 따라서 《국민소학독본》은 전통적인 교과서에서 현대적인 교과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초등 국어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 나라 최초의 신식 초등 국어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의 구성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구성 양상은 편의상 편차 구성, 단원 구성, 내용 구성으로 나누어 당시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인 〈소학교교칙대강〉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먼저 편차 구성에서는 표지→속표지(앞표지 뒷면에 부착)→목차→본문→뒷표지 순

13) 본문 속에 나타난 인명·물명·지명 등을 외래어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명 : 갈리레오(제10과 시계), 華盛頓(제25과 시간각수), 하밀돈(제25과 시간각수), 셰임스 아브람(제27과 짜월드1), 토마스(제27과 짜월드1), 닝콘(제27과 짜월드2), 구리스도화 거론부수(제31과 아미리가발견1), 고론부스(제31과 아미리가발견1), 고런부스(제31과 아미리가발견1), 바도릿구 헨리(제33과 아미리가독립1), 호란구린(제34과 아미리가독립2), 로산부(제34과 아미리가독립2), 쟈 야단스(제35과 아미리가독립3)

② 물명 : 사버멘(제7과 식물변화), 코코((제10과 시계)

③ 지명 : 뎀스강(제14과 윤돈1), 하도손강(제21과 뉴욕), 제세(제21과 뉴욕), 이스더강(제21과 뉴욕), 브로클린(제21과 뉴욕), 바테리(제21과 뉴욕), 부루두웨(제21과 뉴욕), 버엔街(제21과 뉴욕), 웰街(제21과 뉴욕), 사우스街(제21과 뉴욕), 바울街(제21과 뉴욕), 세달街(제21과 뉴욕), 어하이어州(제27과 짜월드1), 오런지村(제27과 짜월드1), 클리브난드(제27과 짜월드1), 히람땅(제28과 짜월드2), 오하요州(제28과 짜월드2), 롱부레인(제28과 짜월드2), 베리스항(제31과 아미리가발견1), 제노와(제31과 아미리가발견1), 가나리島(제31과 아미리가발견1), 버스던땅(제33과 아미리가독립1), 히라텔히아(제34과 아미리가독립2), 실라네바다산맥(제38과 합중국광업), 룿기산맥(제38과 합중국광업), 아레과니의산맥(제38과 합중국광업), 밋시버河(제38과 합중국광업), 미싱안(제38과 합중국광업), 뉴젤시(제38과 합중국광업), 오하이오(제38과 합중국광업), 가리털니아州(제38과 합중국광업), 네바다州(제38과 합중국광업), 이리노스州(제38과 합중국광업), 미세리州(제38과 합중국광업), 변실바니아州(제38과 합중국광업), 마씨제세뜨州(제38과 합중국광업), 빗벌구(제38과 합중국광업), 데리언부다山(제40과 성길사한1), 가라기단(제40과 성길사한1), 허라들(제40과 성길사한1), 그루자(제40과 성길사한1)

14) 강운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에 나타나는 외래어 표기 실태”,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1975, pp.385~565.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문중심교육기의 전통적 교재들의 편차 구성방식과 동일하였다. 또한 판형은 4·6배판 정도의 5침선장본 체재였으며, 문장은 국한문혼용체의 비교적 장문형으로 세로쓰기하여 띄어쓰기와 구두점이 없고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되어 있었다. 한지에 한글에는 학부 신제 목활자(學部新製木活字)와 한자에는 후기 교서관 철활자(後期校書館鐵活字)를 혼용하였는데, 특히 한글 활자체는 종래의 정음체나 궁체 어느 글씨본도 모방한 것이 아닌 독특한 것이었다.

단원 구성은 총41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단원은 298자 내외에서 가장 긴 단원은 1069자 내외까지로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단원의 분량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긴 단원의 경우는 2단원 내지는 3단원으로 나누어 단원 구성을 하였다. 특히 전기문에 해당되는 단원은 모두 6단원인데, 모두가 남성 전기문에 해당되는 단원으로서 우리 나라 인물이 2단원, 미국 인물이 2단원, 중국 인물이 2단원이었다.

내용 구성에서는 <소학교교칙대강> 제4조에서 밝히고 있는 수신적인 내용, 지리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이과적인 내용, 일상 견문한 내용, 처세에 필요한 내용 등으로 대부분 당시의 교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적인 내용이었으며, 다음이 이과적인 내용, 지리적인 내용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이과적인 내용과 지리적인 내용은 당대의 개화사상과 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국민소학독본》은 최초로 초등 국어 교과서로 편찬된 교과서라로서 책의 제목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붙여 절대 군주제를 신봉하던 국체존엄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내용을 주입시키고자 하는 지식 제시의 읽기 위주의 교과서에 머물고 있었다. 아울러 통합교과서적 내용을 다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개화사상과 맞물려 외래어 표기의 인명·물명·지명 등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형식면에서는 한문중심교육기의 전통적 교재의 모습을 답습하였으나 내용면에서는 근대적 모습을 지향하고 있었다.

❖ 참고 문헌 ❖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 1, 아세아문화사(영인), 1977.
- 강운호,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1975.
-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 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이신성, 《우리 고전문학 교재의 이해》, 보고서, 1999.
- 이응백, 《속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1989.
- 이종국, 《한국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정달영, 《국어 단락 이론과 작문 교육》, 집문당, 1997.
- 조연순, 《한국초등교육 : 상고시대에서 일제시대까지》, 학지사, 1996.
- 천경록 외 3인, 《초등국어과교육론》, 교육과학사, 2001.
-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 국어, 도덕, 사회》, 교육부, 1999.
- 최현섭 외 6인, 《국어교육학개론》 (제2판), 삼지원, 2002.
-
- 김대행, “교과서와 국어교육관”, 《국어교육학연구》 10, 국어교육학회, 2000.
- 박인기, “국어과 교재론 기술의 이론화 방향”, 《국어교과교육학의 이론과 방법 연구》, 교학사, 1992.
- 손영애, “국어 교과서 구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17, 인하대 국어교육과, 1995.
- 신헌재, “국어교과서의 지향점 탐색 : 국어 교과서의 개념과 평가 기준 설정의 모색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학의 이론과 방법 연구》, 교학사, 1992.
- 이삼형, “국어교과서 체재 변화에 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 국어교육학회, 1994.
- 이성영, “국어과 교재의 특성”, 《국어교육학연구》 2, 국어교육학회, 1992.
- 이신성,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사성어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1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98.
- 이응백, “보통학교 『조선어독본』에 나타난 한자의 전모”, 《어문연구》 2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9.
- 이주섭, “대학작문 교재 구성의 양상”, 《한국어문교육》 9,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0.
- 이충우, “어휘 교육과 교과서”, 《논문집》 5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6.
- 임성규, “교재 기술에서 글의 난이도 측정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9, 한국초등국

- 어교육학회, 1993.
- 정달영,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락 쓰기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9, 한국
어문교육학회, 1993.
- 주강식, “국민학교 교재의 체계화와 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11, 한
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85.
- 최명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 문장 기술의 준거 탐색을 중심으로”, 《한
국초등국어교육》 1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995.
- 한주섭, “국어과 교재론 : 새로운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국어교육》 79·80, 한국국
어교육연구회, 1992.